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나타난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유형

손 서 현*

(e-mail : chibi74@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음주와 사건 |
| 2. 음주와 풍류 | 5. 결론 |
| 3. 음주와 눈물 | |

キーワード：飲酒(Drinking), 饗宴(Feast), 酒(Sake), 事件(Event), 涙(Tears), 風流(Elegance)

1. 서론

“일본의 전통적 연회는 공적 질서를 중시하는 음주인 전반부가 끝나면 자리를 바꾸어 부레이코(無禮講)¹⁾의 이차 자리가 되는 이부 구성이다. 그 원형이 헤이안 시대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²⁾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서도 의례나 행사에 이어지는 술자리에서는 담소를 나누거나 관현 놀이를 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마시고 있는 술의 종류나 안주 등에 관한 묘사는 거의 없고 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나 특정 행동에 관한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히나타 가즈마사(日向一雅)는 “오십 일 축하연(五十日の祝)이 묘사되어도 그것은 축하 의식을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하 행사와 관련된 주인공들의 여러 고뇌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주안(主眼)이 있었다.”³⁾라고 지적하였다. 김종덕도 “향연에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일본고전문학

1) 신분이나 지위의 상하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는 주연.

2) 石毛直道(2015) 「料理と宴会の形式」 『日本の食文化史』、岩波書店、p.92.

구체적으로 어떤 술과 음식을 먹었는가에 대한 기술은 생략되어 있거나 비교적 간략히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음식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모노가타리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술의 경우에는 “취기가 불러오는 상황을 심리 묘사와 스토리 전개에 활용”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겐지 모노가타리』의 음주 장면은 상차림에 관한 기술이 거의 없다. 그보다는 술을 마시는 장소나 시기(時期)를 알 수 있는 주변의 풍경과 함께 등장인물의 행동이 묘사된다. 예컨대 술자리 근처에 있는 꽃, 강가, 풀벌레, 달이 뜬 밤과 같이 때와 장소를 알 수 있는 주변의 분위기가 묘사되어 계절이나 시간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때 풍류를 즐기며 술을 마시는 귀족들의 모습이 그려지거나 술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장인물이 조명된다. 또 등장인물의 음주로 인한 행동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음주는 시간적 배경을 암시하면서도 특정 행동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이 풍류, 눈물, 사건의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술자리가 단순히 음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노가타리의 장치로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작품에 등장하는 음주나 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김종덕의 「『源氏物語』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⁶⁾에서는 의례와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술과 헤이안 시대의 음식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였다. 고미네 가즈아키(小峯和明)는 「古典文学における〈食〉の登場」⁷⁾에서 음식물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음식이 나오고 거기에서

3) 日向一雅(2004)「光源氏のライフサイクル-行事と儀禮を中心に-」『源氏物語-その生活と文化-』、中央公論美術出版、p.192.

4) 김종덕(2015)「『源氏物語』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일본연구』65호,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149.

5) 今関敏子(2007)「王朝時代の酒禮と酒宴」『乾杯の文化史』、ドメス出版、p.44.

6) 앞의 논문, 김종덕(2015) pp.147-171.

7) 小峯和明(2008)「古典文学における〈食〉の登場」『文学に描かれた日本の〈食〉のすがた』、至文堂、p.21.

작품의 특성이 얼마나 보이는지 주로 ‘풍경으로서의 음식(風景としての食)’의 영역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모노가타리 전개에 필수 불가결한 문학 장치로 음식물을 주목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테라바야시 카요(寺林香代)는 「平安時代の食生活-朝廷の酒について-」⁸⁾에서 일본 술의 기원과 함께 고대사회에서 술과 음주가 지닌 의미를 고전 작품에 보이는 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히나타 가즈마사의 「光源氏の生活と美学」⁹⁾에서는 귀족의 미의식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대변하는 풍류와 주연(酒宴)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에 주목하였다. 마쓰이 겐지(松井健児)는 「藤の宴」¹⁰⁾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연회장면을 통해서 타결되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음주가 특정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행동이 모노가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음주 장면이 의례나 행사 일부로만 다루어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작품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음주에 주목한다는 의의가 있다.

2. 음주와 풍류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겐지(光源氏)는 풍류의 세 벗 중 하나가 금(琴)이라는 말을 한다. ‘세 벗이란 금, 시(詩), 술(酒)’¹¹⁾을 일컫는데 귀족들은 음악, 한시, 술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때 술잔에 꽃을 곁들이거나 특정 인물을 꽃에 비유하며 꽃을 통한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멋스러운 음주 행동은 후지노우라바(藤裏葉)권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4월 초순 무렵(四月朔日ごろ)’(③434) 가시와기(柏木) 두중장이 손님인 유기리

8) 寺林香代(1987) 「平安時代の食生活-朝廷の酒について-」 『夙川学院短期大学研究紀要』12号、夙川学院短期大学、pp.263-274.

9) 日向一雅(2004) 「光源氏の生活と美学」 『源氏物語-その生活と文化』、中央公論美術出版、pp.135-184.

10) 松井健児(2000) 「藤の宴」 『源氏物語の生活世界』、翰林書房、pp.259-267.

11) 阿部秋生 외 3人(1996) 『源氏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p.267, 頭注16. (『백씨문집(百氏文集)』卷62 「북창삼우(北窓三友)」에 의한다.) 이하 『源氏物語』의 인용은 「新編全集」의 권명, 페이지 수를 표기한다.

(夕霧)의 술잔에 등꽃을 곁들여 건네는 장면이다.

두중장은 꽃 색깔이 짙고 특히 송이가 긴 등꽃 가지를 꺾어 손님의 술잔에 곁들인다.

頭中將、花の色濃くことに房長きを折りて、客人の御盃に加ふ。(藤裏葉③438)

마쓰이 겐지(松井健児)는 “가시와기가 등나무의 꽃송이를 꺾어 들고 유기리의 잔에 곁들인다. 이 경우의 등꽃은 구모이노카리(雲居雁) 그 사람의 은유이다.” “등꽃이 구모이노카리의 은유가 되는 것은 구모이노카리가 후지씨(藤氏)이기 때문이지만 거기에 더하여 봄꽃들에 비해 초여름에 피는 등꽃의 개화의 지연, 결국은 결혼의 지연도 암시한 것이 되는 것이다.”¹²⁾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등꽃은 구모이노카리를 찬미하는 은유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의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등꽃연회가 시작된 후 내대신(内大臣)이 불쑥 말을 꺼내는 장면이다.

“봄꽃은 어느 것이나 다 활짝 피어 제각각의 색깔이 깜짝 놀랄만한 아름다움입니다만, 사람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급하게 지고 마는 것이 원망스럽게 생각되는 요즘, 이 등꽃만이 뒤에 남아 여름까지 피어 있는 점이 어쩐지 그윽하고 고상한 것이 참으로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春の花いづれとなく、みな開け出づる色ごとに、目おどろかぬはなきを、心短くうち棄てて散りぬるが、恨めしうおぼゆるころほひ、この花の独りたち後れて、夏に咲きかかるほどなん、あやしう心にくくあはれにおぼえはべる。(藤裏葉③437)

내대신은 ‘봄꽃은 전부 아름다우나 성급하게 빨리 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한다. 반면 등꽃은 ‘봄꽃들과는 달리 여름까지 피어 있는 점이 색다르다.’라며 높이 평가한다. 이는 봄꽃에 비유되는 다른 여성들은 한창 예쁘고 아름다운 시기에 일찍 시집을 가버리는데 등꽃에 비유되는 구모이노카리는 늦게까지 남아있어 그 자세가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것이다. 내대신의 비유는 자칫 흠이 될 수도 있는 딸의 늦어진 결혼을 오히려 아름답고 고귀하게 미화하려는 의도이다. 즉 등꽃은 마쓰이 겐지의 지적처럼 구모이노카리의 은유이자

12) 앞의 논문, 松井健児(2000) 「藤の宴」 p.262, p.266.

결혼의 지연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꽃에 대한 내대신의 평가는 구모이노카리의 가치를 현재의 모습 이상으로 승화시켜 딸은 물론이고 내대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모책으로 꺼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꽃은 풍류의 자리에 멋을 더하기도 하고 은유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의 용례에서는 꽃을 머리에 꽂는 모습도 보인다.

고초(胡蝶)권의 3월,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육조원(六条院)에서는 연못에 배를 띄우는 행사를 성대하게 벌인다. 겐지가 선발한 뛰어난 악인(樂人)들과 무인(舞人)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선상(船上)에서 연주와 기예를 선보이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관현 놀이를 하면서 아침을 맞는다(夜もすがら遊び明かしたまふ).’ (③169) 이때 병부경(兵部卿)이 등꽃을 머리에 꽂고는 술에 취한 척을 한다.

매우 술에 취한 척하며 등꽃을 머리에 꽂고 아양을 부리듯 너스레를 떨고 게신 모습이 매우 재미있다.

いといたうそら乱れて、藤の花をかざしてなよびさうどきたまへる御さまいとをかし。(胡蝶③170)

부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병부경은 다마카즈라(玉鬘)를 새 아내로 맞고 싶어 한다. 그런 속마음을 겐지에게 멘정신으로 말하기에는 머쓱하여 일부러 꽃을 머리에 꽂고 취한 척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학관의 두주에서는 ‘다마카즈라의 아름다움을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③170, 頭注7)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겐지 모노가타리』와 동시대 작품인 『야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¹³⁾에도 귀족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꽃을 머리에 꽂고 와카를 읊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야마토 이야기』 29단에서 “우대신 후지와라 사네카타(藤原定方)가 다른 귀족들과 밤늦도록 바둑을 두고 관현의 음악 연주를 하다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야기하며, 마타리꽃(をみなえし)을 머리에 꽂고 와카를 읊었다.”¹⁴⁾라는 기술이다. 또 『만요슈(万葉集)』에는 꽃을 머리에 꽂거나 술잔에 곁들이는 행동을 읊은 노래가 있다.

13) 『야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는 헤이안 시대인 951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타 모노가타리(歌物語)이다. 전체 17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자는 미상이다.

14) 김종덕(2014) 『헤이안 시대 문학에 나타난 놀이문화』 『겐지 이야기의 전승과 작의』, 제이앤씨, p.494.

푸른 버들과 매화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고 즐겁게 마신 후엔 지고 말아도 좋아
 靑柳 梅との花を 折りかざし 飲みての後は 散りぬともよし (권5-821)¹⁵⁾

봄 버드나무 앞에서 꺾은 것과 매화 꽃잎을 누가 띄워 놓았네 이 술잔 위에
 春柳 かづらに折りし 梅の花 誰か浮かべし 酒杯の上に (권5-840)¹⁶⁾

매화꽃이, 꿈속에서 말하길 풍류가 있는 꽃이라 생각하니 날 술에 띄워 다오
 梅の花 夢に語るく 風流たる 花と我思ふ 酒に浮かべこそ (권5-852)¹⁷⁾

한편 『겐지 모노가타리』의 사카키(賢木)권에서는 중장(中將)¹⁸⁾이 한시집(漢詩集)을 들고 겐지를 찾아간다. 겐지와 중장은 한시와 한문에 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들여 양쪽으로 편을 갈라 운감추기(韻塞ぎ)¹⁹⁾를 한다. 결과는 중장 팀이 졌고, 이틀쯤 지난 후에 중장은 벌칙으로 향연의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겐지에게 먼저 ‘중장이 잔을 건넨다(中將御土器まゐりたまふ).’(p.142) 이긴 팀의 겐지는 웃는 얼굴로 잔을 받는다. 이를 통해서 운감추기의 승부로 마련된 술자리는 진 쪽에서 이긴 쪽 사람에게 먼저 술을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쓰카제(松風)권에서 겐지는 오이(大堰)를 방문한다. 아카시(明石)를 떠나 오이에 머물고 있는 부인 아카시노키미(明石君)와 딸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겐지는 아카시노키미와 이들을 함께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가쓰라노인(桂の院)으로 이동하여 향연의 자리를 갖는다.

술잔이 순서대로 몇 번이나 돌고 강가를 산책하는 것도 발밑이 위험하기에 술에 취한 채 하루 종일 여기에서 지내셨다. 제각각 절구(絶句) 등을 연달아 짓고, 달이 선명하게 떠오를 무렵에는 관현 합주가 시작되어 대단히 활기차다. 大御酒あまたび順流れて、川のわたりあやふげなれば、酔ひに紛れておはしまし暮らさつ。おのおの絶句など作りわたして、月はなやかにさし出づるほどに、大御遊びはじまりて、いと今めかし。(松風②418-419)

15) 小島憲之 外(1995) 『万葉集 ②』(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pp.42-43. (이하 『万葉集』의 인용은 권명, 国歌大観 번호를 표기함.)

16) 앞의 책, 『万葉集 ②』 p.47.

17) 앞의 책, p.50.

18) 중장(中將)은 좌대신의 장남으로 겐지의 첫 번째 부인인 아오이노우에(葵上)의 남자 형제이다.

19) 앞의 논문, 김중덕(2014) p.506. (운 감추기韻塞ぎ는 고시古詩의 운을 감추고 이를 맞추는 놀이로, 맞으면 ‘明明’이라고 했다.)

잔이 돌아가는 형태가 순서대로라는 점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몇 번이나 돌아간 술잔은 겐지를 취하게 하였고 그것이 겐지를 온종일 가쓰라노인에 머물게 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무로키 히데유키(室城秀之)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관현에 흥겨워하며 시간을 보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연대가 키워진다.”²⁰⁾라고 지적하였다.

오토메(少女)권에서는 2월 중순이 지나 레이제이 천황(冷泉帝)이 상황의 거처인 스자쿠인(朱雀院)으로 행차한다. 향연에서는 춘앵전(春鶯囀)의 춤이 끝날 무렵 ‘대신이 상황에 술잔을 올리며(大臣、院に御土器まゐりたまふ)(p.72)’ 노래를 읊는다. 겐지 대신(大臣)의 잔을 받은 스자쿠 상황은 바로 답가를 읊었고, 이어서 겐지의 동생 병부경이 ‘레이제이 천황에게 술잔을 올리며(今の上に御土器まゐりたまふ)’(p.72) 노래를 읊는다. 천황이 ‘술잔을 받고서(取らせたまひて)’(p.73) 답가를 읊자 내레이터(語り手)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노래가 이것뿐인 것은 오늘의 행사가 공식적인 것이 아닌 집안끼리의 간소한 자리라 많은 분에게 계속해서 술잔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빠뜨리고 쓴 것인지

これは御私さまに、内々のことなれば、あまたにも流れずやなりにけん、また書き落としてけるにやあらん (少女③73)

소학관의 두주(頭注)에서는 ‘술잔이 돌고 있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노래를 읊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그 술잔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노래를 빠뜨리고 적은 탓인지 라며 내레이터도 모른다.’²¹⁾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시게 나옴치(石毛直道)는 술잔을 돌리는 것은 “같은 잔에 입을 댄으로써 같은 잔으로 마신 사람들 간에 인격의 공용이 행해져 그것에 의한 연대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²²⁾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마쓰이 겐지는 “남성 관인들에게 술과 시가(詩歌)는 자기가 속한 집단과의 긴장을 동반한 일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²³⁾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메가에(梅枝)권에서는 2월이 되자 겐지의 주도로 향 겨루기를 한다.

20) 室城秀之(2008) 「物語と食」 『文学に描かれた日本の「食」のすがた』、至文堂、p.116.

21) 앞의 책, 『源氏物語 ③』 p.73, 頭注16.

22) 石毛直道(2015) 「個人別配膳法」 『日本の食文化史』、岩波書店、p.86.

23) 松井健児(1999) 「酒宴と権勢」 『源氏研究』 4号、翰林書房、pp.76-77.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姫君)가 동궁비로 입궁할 때 가지고 갈 향이라 육조원에서는 정성을 쏟는다. 겐지와 동생 병부경은 향 조합이 끝나고 나서 ‘달이 떠오르자 술을 마시며(月さし出でぬれば、大御酒などまゐりて)’(③410) 옛이야기를 한다. 이후 가시와기 두중장(頭中將)과 유기리 재상중장(宰相中將), 변소장(弁小將)까지 합류하자 관현 합주를 시작하고 노래를 읊으며 술잔을 돌린다. 제일 먼저 병부경이 ‘겐지에게 술잔을 건네며(御土器まゐるに)’(p.411) 노래를 읊는다. 겐지가 답가를 하고는 ‘두중장에게 술잔을 건네자, 받고서는 재상중장에게 권한다(頭中將に賜えば、とりて宰相中將にさす)’(p.411) 소학관의 두주에서는 “권해은잔의 술을 마신 후에는 다음 차례로 넘기는 것이 관례로 겐지에게서 가시와기에게 넘어간 술잔이 다시 유기리에게 건네진다. 그때마다 노래를 읊는데 대체로 신분 순서대로”²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세가와 노리아키(長谷川範彰)는 노래를 읊는 순서가 거의 신분 순이기는 하지만, “한 군데 신분과 역전(逆転)되어 있는 것이 가시와기와 유기리의 부분인데 그 앞의 노래가 겐지의 노래이기 때문에 친자(親子)로 술잔이 도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⁵⁾라고 지적하였다. 즉 병부경이 겐지에게, 겐지는 가시와기에게, 가시와기는 유기리에게, 유기리는 변소장에게 술잔을 돌리며 노래를 읊은 것이다.

이처럼 노래를 읊으며 잔을 돌리는 묘사는 앞서 인용했던 후지노우라바 권의 등꽃연회에서 보인다. 가시와기가 유기리의 술잔에 꽃을 곁들여 주던 장면에서 내레이터의 시선으로 첨언하는 부분이다. “순서대로 술잔이 도는 것과 함께 노래가 읊어지는 듯한데 술에 취해 대단한 것도 없고(次々順流るめれど、酔ひの紛れにはかばかしからで)”(③439)라며 내레이터는 문장을 줄인다.

이상으로 음주로 발현되는 풍류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술자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한시를 지어가며 풍류를 즐겼다. 이때 꽃을 매개로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술잔을 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잔을 돌리는 행동은 단결을 통한 일체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놀이이면서도 동시에 일원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잔을 돌리는 형태가 대체로 신분 순서대로라는 점에서는 주인공들의 상하 관계 구도와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의 현재 상태를 여러 사람이 모인 가

24) 앞의 책, 『源氏物語 ③』 p.411, 頭注23.

25) 長谷川 範彰(2013) 「『源氏物語』における酒宴と和歌- 「少女」巻行幸の酒宴を中心に」 『王朝びとの生活誌』、森話社、p.228.

운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류의 자리에는 항상 비교 대상이 가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음주 행동은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등장 인물의 ‘현재’를 조명하기 위한 문학장치로 보인다.

3. 음주와 눈물

『겐지 모노가타리』의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눈물을 자주 흘린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용례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와카무라사키(若紫)권에서 겐지는 학질에 걸려 고생한다. 온갖 방법을 써도 차도가 없자 기타야마(北山)에 있는 수행승을 찾아간다. 겐지의 병은 연로한 수행승의 치료로 완치되었고 도읍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술자리가 마련된다. ‘수행승은 술잔을 받잡고(聖、御土器賜りて)’(①221) 와카를 읊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겐지를 바라본다(うち泣きて見たてまつる).’(p.220) 수행승의 눈물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어짐의 아쉬움은 물론이고 병으로 고생하던 겐지가 자신의 치료로 완쾌되어 기쁘기도 한 것이다. 동시에 보기 드문 귀한 용모를 지닌 겐지를 만난 것에 대한 감동과 영광 등의 감정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소를 띠고(ほほ笑みて)’(p.221) 있는 젊은 겐지의 표정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카키권(賢木)에서도 겐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모습이 기술된다. 향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겐지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자 나이든 박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나이든 박사들은 멀리서 뵈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다.

年老いたる博士どもなど、遠く見たてまつりて涙落としつつみたり。(賢木②142)

박사들의 눈물은 겐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로써 겐지의 아름다움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나이든 박사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으

므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노인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겐지는 당시의 정권을 쥐고 있던 우대신가(右大臣家)의 딸과 밀회를 하다가 우대신에게 발각된다. 겐지는 많은 고민 끝에 스마(須磨)로 퇴거하기로 결심한다. 떠나기 전에는 좌대신(左大臣)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데 좌대신은 슬피하며 ‘몹시 눈물을 흘린다(いたうほたれたまふ).’(②165) 좌대신의 장남인 ‘3위 중장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술 등을 마시는데(三位中將も参りあひたまひて、大御酒など参りたまふに)’(p.167) 밤이 깊어진다. 이후 스마로 떠난 겐지의 생활은 쓸쓸한 시간이 이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좌대신의 장남인 중장이 찾아와 함께 밤을 새우고 다음 날에는 귀경을 서두른다. 마지막에는 ‘술잔을 들고서(御土器まゐりて)’(p.215) 목소리를 합하여 한시를 낭송하자 모두가 눈물을 흘린다.

겐지와 수행원들도 눈물을 흘린다. 제각기 너무 짧은 만남 후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하다.

御供の人も涙をながす。おのがじはつかなる別れ惜しむべかめり。(須磨②215)

모두가 흘린 눈물은 짧았던 만남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겐지가 처해있는 환경이 지금까지의 생활과 너무 달라서 그 차이를 눈물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아와세(絵合)권에서는 전 재궁(前齋宮)의 그림 솜씨가 뛰어나자 레이제이 천황이 점차 더 좋아한다. 그것을 알게 된 권중납언(権中納言)은 그림의 명인들을 불러들여 최고의 역작을 그리게 하고 좋은 그림들도 모으게 한다. 이후 궁중에서 권중납언과 겐지가 좌우로 편을 갈라 그림 겨루기 시합을 한다. 권중납언의 딸과 겐지의 양녀인 전 재궁의 대결이다. 최종적으로는 겐지가 스마에서 그린 그림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겐지 측이 승리한다. 새벽녘의 술 자리에서는 돌아가신 선황 시절의 추억담이 오가자 모두 눈물을 흘린다.

술에 취해 우는 것인지 선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눈물에 젖으셨다.

酔泣きにや、院の御事聞こえ出でて、みなうちしほたれたまひぬ。(絵合②390)

술을 마시던 겐지가 선황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훗날에 병부경으로 불리는 겐지의 동생도 공감하며 추억담이 오간다. 이는 “지금이 기리쓰보(桐

靈) 천황의 성대(聖代)를 답습하여 그 유지(遺志)를 계승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있다.”²⁶⁾ 또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흘린 눈물은 겐지와 병부경이 회상하는 과거를 증언해주는 동시에 두 사람의 대화에 공감을 표하는 무언의 언어로 볼 수 있다.

오토메(少女)권에서도 술을 마시며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기술된다. 겐지는 유기리에게 대학료(大學寮) 시험에 앞서 모의시험을 치르게 한다. ‘우대장, 좌대변, 식부대보, 좌중변 등이 참석하고 스승인 대내기를 불러(例の大將、左代弁、式部大輔、左中弁などばかりして、御師の大内記を召して)’(③28) 평가를 하게 한다. 유기리의 실력이 뛰어나자 겐지를 비롯하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誰も誰も涙落としたまふ).’(p.28) 이때 유기리의 스승인 대내기에게 ‘우대장이 술잔을 권하는데 완전히 술에 취한 얼굴은 매우 초췌하다(大將、盃さしたまへば、いたう酔ひ痴れてをる顔つき、いと瘦せ瘦せなり).’(p.29) 대내기의 취한 얼굴을 통해서 유기리의 테스트가 끝나기 전부터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내기는 유기리를 가르친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표시로 많은 술을 권유받았을 것이다. 또 모두가 흘린 눈물은 놀라움, 기쁨, 감사, 감탄, 만족, 안도 등의 제각각 느끼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가리비(篝火)권에서 겐지는 다마카즈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둘이 바짝 붙어 누워 있거나(もろともに添ひ臥したまへり)’(③256)하며 부너지간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 겐지는 서쪽 별채에서 다마카즈라에게 악기도 가르치는데 유기리와 그 친구들의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을 불러들인다.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겐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낸다.

“오늘 밤은 술잔도 삼가기로 하지요. 한창때가 지난 사람은 술에 취해 울 때 무심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할 수도 있을 테니.”

今宵は盃など心してを。盛り過ぎたる人は、酔泣きのついでに、忍ばぬこともこそ (篝火③259)

겐지는 유기리와 그의 친구들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기 위하여 술을 삼가는 모습이다. 술을 마시면 다마카즈라에 대한 애뜻한 속마음과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심코 발설하게 될까 조심하는 것이다. 또 자기 자신을

26) 앞의 논문, 日向一雅(2004) p.145.

‘한창때가 지난 사람(盛り過ぎたる人)’에 빗대며 자신의 늙음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술에 취하면 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미유키(行幸)권에서 겐지는 다마카즈라의 성인식에 앞서 내대신을 만난다. 겐지는 ‘술잔이 여러 번 돌고 모두 취기가 돌자(土器あまたたび流れ、みな酔ひになりて)’(③305) 많은 대화 끝에 다마카즈라가 내대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놀란 내대신은 ‘눈물을 흘리고(まづうち泣きたまひて),’(p.308) 그 옛날 비 오는 날 밤에 여성 품평회(雨夜の品定め)를 했던 일까지 떠올라 두 사람은 울었다 웃었다 한다. 한편 다마카즈라의 성인식은 겐지의 육조원에서 거행된다. 내대신은 ‘술잔에 입을 대며(御土器まるるほどに)’(p.317) 노래를 읊었고, ‘역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なほつつみもあへずしほたれたまふ).’(p.317) 내대신의 눈물은 딸과 겐지에 대한 미안함과 반가움,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원망 등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눈물일 것이다.

한편 후지노우라바(藤裏葉)권의 술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내대신의 모습이 보인다. 내대신은 유기리와 불편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개최하는 등꽃연회에 유기리를 초대한다. 자신이 갈라놓았던 딸과 유기리를 다시 이어주려는 것이다. 유기리를 향한 내대신의 행동 변화는 “유기리와 중무궁가(中務宮家)와의 혼담이 소문나기에 이르자 마침내 내대신은 자기 스스로 <지기>로 결의”²⁷⁾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다급해진 내대신은 유기리를 사윗감으로 인정하려는 듯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쓰는 관(冠)까지 준비한다.

대신은 유기리가 앉을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게 하는 등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다. 관을 쓰고 나갈 준비를 하며

大臣、御座ひきつくろはせなどしたまふ御用意おろかならず。御冠などしたまひて出でたまふとて(藤裏葉③436)

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정중한 대접(それだけ丁寧な応接)’(③436)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대신은 관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유기리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공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회가 시작되자 내대신은 유기리에게 술을 권하고 ‘역시 굽히고 들어가야겠다(なほ負けぬべきなめり)’(p.432)는 생각을 해서인지 약한 모습을 보이려는 듯 눈물까지 흘린다.

27) 앞의 논문, 松井健児(2000)「藤の宴」p.260.

술에 취해 우는 것인지 능수능란하게 속마음을 던지시 내비친다.

酔泣きにや、をかきほどに気色ばみたまふ。(藤裏葉③438)

내대신은 자신이 반대했던 유기리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그것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척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대신의 행동은 “제 스스로의 패배를 감추면서 한층 더 상대방에 대한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교묘한 태도였다.”²⁸⁾ 그런데 이러한 내대신의 작전은 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내대신의 눈물 속에는 유기리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과 미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초조함과 호소, 화해와 용서 등의 복잡한 심경이 녹아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와카나 상(若菜上)권에서는 겐지의 마흔 살을 축하하는 행사가 네 번에 걸쳐 개최된다. 가장 마지막에 열린 축하연에서는 겐지와 내대신이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린다.

술잔을 몇 번이나 기울이시고 자리의 흥취는 끝날 줄 모르는 모습인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눈물을 가누지 못하신다.

御酒あまた度まりて、物のおもしろさもとどこほりなく、御酔泣きどもえとどめたまはず。(若菜上④101)

겐지와 내대신은 겐지의 40세 축하연을 맞아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데다가 술에 취하니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났을 것이다. 마쓰이 겐지는 “술에 취해 우는 것은 과거로 향한 심정을 나타내는 신체 표현이다. 연회 자리에서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몸짓이고, 일면은 우미(優美)한 귀족적인 몸짓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는 모두 회고해야 할 과거가 전제되어 노인에게 현저한 신체 표현으로서 기능한다.”²⁹⁾라고 지적하였다. 겐지와 내대신도 젊었을 때는 음주를 하며 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술자리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28) 松井健児(2000) 「みやびと身体」 『源氏物語の生活世界』、翰林書房、p.168.

29) 松井健児(2000) 「生活内界の射程」 『源氏物語の生活世界』、翰林書房、p.128.

와카나 하(若菜下)권에서는 스자쿠 상황의 50세 축하연을 앞두고 예행연습을 한다. 리허설 공연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춤을 추자 ‘나이 드신 상달부들은 모두 눈물을 흘린다(老いたまへる上達部³⁰)たちは、みな涙落したまふ).’(p.280)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자 겐지가 말을 꺼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술에 취해 우는 버릇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군요.”
 過ぐる齡にそへては、酔泣きこそとどめがたきわざなりけれ。(若菜下④280)

상기의 리허설은 신세대와 구세대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며 모노가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교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겐지의 자식 세대가 어린 손자세대에게 기예를 가르쳐 대물림하고 그것을 지켜본 겐지 세대의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흘린 눈물은 각자가 느끼는 사랑스러움, 놀라움, 만족, 감탄, 안심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일 것이다. 즉 구세대가 흘린 눈물은 감상과 함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세대교체의 과정이 성공적이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나이가 들면서 술에 취해 우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겐지의 말은 자신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늙음을 자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등장인물이 술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짧았던 만남이나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였다. 둘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데 좋았던 기억일수록 오히려 눈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감격이나 감동 등의 의미로 눈물을 흘렸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대 이상의 일이 발생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노인의 신체 표현의 하나로 노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거나 자각하는 경우였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음주를 하며 흘리는 눈물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눈물을 자주 보였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생긴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로 흘리는 눈물은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등장인물의 ‘과거’를 불러오기 위한 문학장치로 보인다. 주인공들이 회상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결국 모노가타리의 지난 과거의 시간을 대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0) 太政大臣·左大臣·右大臣·大納言·中納言·參議 및 3품 이상 당상관의 총칭. 公卿이라고도 한다.

4. 음주와 사건

『겐지 모노가타리』에서는 등장인물의 음주가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기존의 인간관계를 조정(調整)하여 새로운 관계 구도로 재편성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의 용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하키기(帚木)권에서 겐지는 친숙한 수행원들만 데리고 기이 수령(紀伊守)의 집을 방문한다. 수령은 겐지 일행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밤이 되면서 ‘취기가 돌자 모두 뒷마루에 누운 채 잠이 들어 고요해 진다(酔ひすすみて、みな人々簀子に臥しつつ、静まりぬ).’(①97) 유일하게 겐지만 편안한 잠을 못 자고 눈이 떠지는데 마침 북쪽 장지문 너머로 우쓰세미(空蟬) 남매의 대화가 들려온다. 엿듣기를 하던 겐지는 우쓰세미 옆에 시녀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다. 겐지는 너무도 손쉽게 우쓰세미를 범하는데 이는 술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간밤에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어젯밤에는 정말 정신없이 잘 잤네(いといぎたなかりける夜かな).”(p.102)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소학관의 두주에서는 ‘이 말에서 어젯밤 일의 비밀이 지켜졌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안겨준다.’³¹⁾라고 해석하였다. 또 이 말은 지난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모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겐지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쓰세미가 있는 방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남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하나노엔(花宴)권에서는 2월 20일 즈음에 궁중에서 성대한 벚꽃연회(桜の宴)가 열린다. 연회는 밤이 깊어서야 끝나는데 술에 취한 겐지는 매우 밝은 달이 운치 있게 떠 있자 얌전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겐지는 술에 취한 기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서
源氏の君酔ひ心地に、見すぐしがたくおぼえたまひければ (花宴①355)

술에 취한 겐지는 혹시라도 후지쓰보를 만날 기회가 생길까 하여 중궁의 처소 근처를 몰래 걸어가 본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틈이 보이지 않자 홍취전(弘

31) 앞의 책, 『源氏物語 ①』 p.103, 頭注16.

徽殿) 쪽으로 가본다. 때마침 ‘매우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보통의 신분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여자가(いと若うをかしげなる声の、なべての人とは聞こえぬ)’(①356) 노래를 읊으며 겐지 쪽으로 다가온다. 겐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별안간 여자의 소매를 잡는데 심하게 취한 탓인지 그냥 보내기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겐지는 지나치게 취한 탓인지 그대로 여자를 놓아주는 것은 아쉬워
 酔ひ心地や例ならざりけむ、ゆるさんことは口惜しきに (花宴①357)

겐지는 이 장면에서 오보로즈키요(朧月夜)³²⁾와 처음으로 대면한다. 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술에 취한 겐지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다. 이후 겐지는 여인의 신분을 알고 나서도 밀회를 거듭한다. 결국 우대신에게 발각되어 심각한 사건으로 대두되자 고민 끝에 스마(須磨)로 내려갈 결심을 한다. 겐지의 스마 퇴거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있지만, “스자쿠 천황이 총애하는 오보로즈키요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스마·아카시로 유적(流謫)의 몸이 된다.”³³⁾와 같이 직접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스마 퇴거의 동기는 오보로즈키요와의 밀회 발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후지쓰보 사건의 심층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겐지는 스스로의 근신과 자신이 후견인 동궁의 안태를 지키기 위해 퇴거를 결심한 것이다.”³⁴⁾라는 주장도 있다. 즉 겐지는 오보로즈키요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스스로의 근신과 동궁³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로 퇴거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겐지와 동궁은 친자(親子)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겐지가 동궁의 안위(安危)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겐지의 스마 퇴거의 발단은 바로 겐지의 음주 때문이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오보로즈키요와의 첫 만남은 겐지가 술에 취해 이동하면서 이루어졌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녀와 술김에 남녀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즉 겐지가 스마로 퇴거한 것은 자신을 취하게 한 술이 먼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오보로즈키요(朧月夜)는 겐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우대신가의 여섯 번째 딸이다. 고키텐 여어(弘徽殿女御)의 동생이면서 겐지의 이복형인 동궁(훗날의朱雀院)의 약혼자이기도 하다.

33) 山田邦和 外4名(2008) 『平安京と王朝びと』、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p.12.

34) 김중덕(2014) 「왕권담의 전승과 『겐지 이야기』」 『겐지 이야기의 전승과 작의』, 제이앤씨, p.119.

35) 동궁은 훗날의 레이제이 천황(冷泉帝)이다.

아오이(葵)권에서는 가모(賀茂)의 재원(齋院)이 목욕재계 의식을 치르던 날 수레싸움(車争い)이 벌어진다. 수행 행렬에 천황의 명을 받은 겐지까지 동참하자 거리는 구경하러 나온 인파와 수레들로 뒤덮여 매우 혼잡했다. 겐지와 연인 사이인 로쿠조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도 나와 있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박하게 꾸민 수레에 앉아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다. 반면 정처(正妻)인 아오이노우에(葵の上)의 수행원들은 일행의 수레를 세울 곳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로쿠조미야스도코로의 수행원들과 자리싸움을 벌인다.

어느 쪽이든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술에 취하여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는데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다.

いづ方にも、若き者ども酔ひすぎたち騒ぎたるほどのことは、えしたためあへず。(葵②22)

심하게 술에 취한 양쪽 수행원들이 수레 자리를 놓고 거칠게 싸우는데 미야스도코로의 수레 일부가 부서지는 수모를 당하며 밀려난다. 또 아오이노우에의 수행원들이 내뱉은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미야스도코로의 신분도 저절로 드러난다. 많은 구경꾼이 지켜보는 거리에서 치욕적인 봉변을 당한 미야스도코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자 아오이노우에에게 원한을 품는다. 점차 극도에 달한 미야스도코로의 분노는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온 생명(生靈)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모노노케(物の怪)가 되어 아오이노우에를 죽게 만든다. 즉 아오이노우에의 죽음은 양쪽의 수행원들이 술에 취해 흥분해서 벌인 싸움이 화근이었다. 수행원들이 술에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야스도코로의 수레가 망가질 정도로 과격하고 거칠게 싸웠던 것이고 미야스도코로를 향한 모욕적인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음주는 사건의 화근으로 작용하여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한편 앞서 인용했던 후지노우라바권의 술자리에서 유기리는 ‘매우 술에 취한 척을 하며(いたうそらなやみして)’(③440) 자고 가게 해달라는 말을 꺼낸다. 내대신은 가시와기에게 ‘손님의 침소를 보살펴주어라(御休み所もとめよ)’(p.440)라고 하고는 안으로 들어간다. 가시와기는 유기리를 구모이노카리의 방으로 안내하여 두 사람을 댕겨준다. 유기리와 구모이노카리의 결합은 모노가타리 내부에 변화를 불러오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부터 등장인물 간에 새로운 관계 구도가 설정되고 주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

기리가 내대신의 사위가 되면서 겐지와 내대신의 관계는 저절로 사돈으로 변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카시노 히메기미(明石姫君)가 동궁비로 입궁하였고, 겐지는 준태상천황(准太上天皇)의 자리에 오른다. 내대신은 태정대신(太政大臣)으로 승진하였고, 유기리도 중장에서 중납언(中納言)으로 승진하는 등 유기리와 구모이노카리의 결합을 계기로 모노가타리가 급물살을 타며 빠르게 전개된다.

한편 와카나 하권에서는 스자쿠 상황의 50세 축하연에 앞서 시연(試演) 행사가 열린다. 겐지는 병상에 있던 가시와기도 초대하고는 술자리에서 가시와기만을 겨냥하여 빈정거리는 말을 하고, 가만히 응시하기까지 하며 술을 권한다. 가시와기는 온나산노미야와의 밀통이 겐지에게 들키면서 병이 난 상태였다.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는 척만 하려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겐지는 오히려 가시와기에게만 재차 술을 강권한다. 가시와기는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지자 연회 도중에 귀가한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몹시 취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기분인 것일까(例の、いとおどろおどろしき酔ひにもあらぬを、いかなればかかるならむ)”(④281)하고 생각한다. 애초에 “가시와기는 밀사(密事)가 노현(露顯)된 것을 알고 나서 겐지에 대한 외포(畏怖)로 병든 몸이 된 것”³⁶⁾이기 때문에 그런 겐지를 대면하는 자리이니만큼 초긴장 상태였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만을 정조준한 겐지의 비꼬는 말과 가만히 응시하던 눈, 그리고 거둬 강권하며 무리하게 마시게 했던 술에 의해서 몸에 이상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통 때보다는 몹시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참지 못할 고통을 느꼈던 것은 평소에 건강했을 때와는 달리 가시와기가 이미 병든 몸의 환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 고통은 가시와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중병(重病)이 된다.

술에 취한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대로 매우 중한 병이 된다.

しばしの酔ひのまどひにもあらざりけり。やがて、いといたくわづらひたまふ。(若菜下④281)

가시와기는 연회에서 돌아온 그 날부터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고 이후에도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다음 해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즉 가시와기의 죽음은 밀통으로 인한 겐지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생긴 병, 겐지의 빈정거리는 말과 매서운 눈초리, 그리고 술이 더해져서 성립한 것이다. 특히 겐지가 분

36) 秋山虔(2011) 「柏木の生と死」 『源氏物語の論』、笠間書院、p.196.

노의 감정을 담아 가시와기에게만 거듭 강권하며 마시게 한 술은 물리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 최적의 흥기로서 가시와기를 죽게 만든 핵심적인 보복의 도구였을 것이다.

이처럼 술이 흥기가 되어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은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고지키(古事記)』에도 보인다. 전설의 생물인 야마타노오로치(八俣の大蛇)라는 큰 뱀을 술을 이용해서 퇴치하는 이야기이다. 이즈모(出雲)로 추방된 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速須佐之男命)는 지역신인 아시나즈치(足名椎) 데나즈치(手名椎)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빚은 독한 술을 만들어(八塩折の酒を醸み)’³⁷⁾ 그릇마다 담아 텃으로 놓아두라고 명령한다. 이후 야마타노오로치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오로치를 베어 퇴치한다.

이상으로 등장인물의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음주로 인한 사건은 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재조정(再調整)하는 역할을 하였다. 겐지는 음주 후에 우쓰세미, 오보로즈키요와 남녀관계를 맺는 사건을 일으켰다. 유기리는 취한 것을 구실로 내대신 댁에서 자고 갈 명분을 만들어 그날 밤 구모이노카리와 맺어졌다. 반면 아오이노우에와 가시와기의 경우처럼 술이 화근이 되거나 술과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노가타리의 시간을 흐르게 하고 인물들의 관계 구도를 재배치시키면서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등장인물의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유도하고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등장인물들을 ‘미래’로 내보내기 위한 문학 장치로 보인다.

5. 결론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은 주로 풍류, 눈물, 사건과 관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음주와 풍류>, <음주와 눈물>, <음주와 사건>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음주와 풍류>의 장에서는 주연(酒宴)에서 풍류를 즐기는 등장인물의 행동

37) 山口佳紀 외 1人(1997) 『古事記』(「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p.71.

을 살펴보았다. 술자리에서는 꽃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등장인물의 현재 속마음이 함께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노래를 읊어가며 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술잔을 돌리는 형태가 대체로 신분 순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계 관계가 저절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다. 즉 풍류의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현재 상태는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현재’를 나타내기 위한 문학 장치로 보인다.

<음주와 눈물>의 장에서는 술자리에서 흘리는 등장인물의 눈물을 살펴보았다. 음주 자리에서는 슬픔은 물론이고 기쁨이나 감동 등의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눈물을 흘렸다. 특히 노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생긴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였다. 그런 점에서 특정 인물의 눈물은 늙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면서도 이야기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주로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기억을 매개로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과거’를 불러오기 위한 문학 장치로 보인다.

<음주와 사건>의 장에서는 등장인물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술은 인간관계를 제어하고 이야기 전개에 변곡점(變曲點)을 만들어 내는 핵심적 매개체였다. 특히 음주로 야기되는 사건은 주로 남녀관계에 변화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음주는 사건의 불씨로 작용하거나 음주와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즉 등장인물의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은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유도하여 모노가타리의 시간을 현재에서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문학 장치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음주로 발현되는 행동 유형을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등장인물들이 풍류를 즐기는 술자리는 모노가타리의 시간상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둘째 음주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등장인물의 ‘과거’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은 등장인물들을 ‘미래’의 시공간으로 내보내며 모노가타리의 기류를 바꾸기 위한 문학 장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종덕(2015) 「『源氏物語』에 나타난 음식문화 연구」 『일본연구』 65호,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pp.147-171. (DOI:https://doi.org/10.15733/jast.2015.65.147)

- (2014) 「헤이안 시대 문학에 나타난 놀이문화」 『겐지 이야기의 전승과 작의』, 제이앤씨, pp.491-508.
- 손서현(2018)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나타난 강권하는 술의 제양상」 『일어일문학연구』 107권 2호, 한국일어일학회, pp.27-46.
(DOI:https://doi.org/10.17003/jllak.2018.107.2.27)
- 秋山虔(2011) 「柏木の生と死」 『源氏物語の論』, 笠間書院, pp.187-207.
- 石毛直道(2015) 「時代の背景」 『日本の食文化史』, 岩波書店, pp.55-63.
- (2015) 「料理と宴会の形式」 『日本の食文化史』, 岩波書店, pp.89-93.
- 今関敏子(2007) 「王朝時代の酒礼と酒宴」 『乾杯の文化史』, ドメス出版, pp.21-55.
- 小峯和明(2008) 「古典文学における<食>の登場」 『文学に描かれた日本の<食>のすがた』, 至文堂, pp.19-29.
- 寺林香代(1987) 「平安時代の食生活-朝廷の酒について-」 『夙川学院短期大学研究紀要』 12号, 夙川学院短期大学, pp.263-274.
- 長谷川範彰(2013) 「『源氏物語』における酒宴と和歌-「少女」巻行幸の酒宴を中心に」 『王朝びとの生活誌』, 森話社, pp.219-240.
- 日向一雅(2004) 「光源氏の生活と美学」 『源氏物語-その生活と文化』, 中央公論美術出版, pp.135-184.
- (2004) 「光源氏のライフサイクル-行事と儀礼を中心に-」 『源氏物語-その生活と文化』, 中央公論美術出版, pp.185-246.
- (2004) 「貴族の学芸と遊芸」 『源氏物語-その生活と文化』, 中央公論美術出版, pp.277-287.
- 五島邦治(2008) 「貴族の暮らし」 『平安京と王朝びと』,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pp.110-121.
- 松井健児(2000) 「生活内界の射程」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p.105-130.
- (2000) 「藤の宴」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pp.259-267.
- (2000) 「みやびと身体」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pp.163-179.
- (1999) 「酒宴と権勢」 『源氏研究』 4号, 翰林書房, pp.68-83.
- 室城秀之(2008) 「物語と食」 『文学に描かれた日本の「食」のすがた』, 至文堂, pp.113-120.

논문 투고 일자 : 2019. 05. 31.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 要旨 >

『源氏物語』に表れた飲酒によって発現される行動類型

孫杼儼

本稿では、『源氏物語』における飲酒後の行動パターンを具体的な用例とともに分析した。特に風流、涙、事件にかかわる三つの行動が浮き彫りにさ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てみた。

酒宴では、複数の人が一緒に風流を楽しみながら物語の表面上には現れない現在の本音を表わしたりする。盃を回しながら酒を飲む飲酒行動も見られるが、概ね身分の順であった。また、酒席で流す涙は、喜怒哀楽の感情が単純ではなく、複数の感情が交錯する複雑なものである場合、涙とともに表現する傾向がある。主に過ぎ去った過去を回想したり、過去と現在を比較して生じた感情を示す場合が多い。それから登場人物の飲酒によって発生する事件は、人間関係を再編成し、物語に新しい時間と空間を与える契機を作る。物語の迅速な展開を誘導し、物語の時計を現在から未来へ自然に転換させる役割を持つものである。

以上、『源氏物語』の酒席で飲酒により発現される行動が作品で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か考察した。風流の行動は、物語の時間上で「現在」を示すためのものであり、涙を流す行動は登場人物たちの「過去」を呼び寄せる役割をし、事件は登場人物を「未来」に送り出すための文学的な仕掛けで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

Behavioral types that are revealed by drinking in “The Tale of Genji”

Son, Seo-Hyun

This study analyzed the behavioral types revealed by drinking in 『The Tale of Genji』, along with specific example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three behaviors that are related to art connoisseurship, tears, and events.

In the drinking party, many people consider themselves art connoisseurs and use this to reveal their inner mind. There is also a drinking behavior in which they share glasses, usually in order of status. Tears shed at a drinking party tend to be a method of expressing complex emotions: it is often expressed by remembering the past or comparing the emotions of the past to the present. Events occurred due to the drinking behavior of characters create an opportunity to reorganize relationships and for the story to move to a new time and space. It induce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tory and acts as a literary technique to shift the story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

We examine the role of behaviors revealed during the drinking party of 『The Tale of Genji』. We found that the behavior of art connoisseurship is to represent the “present,” The behavior of shedding tears is to discuss the “past” of characters, and the event is a literary device for sending characters to the “future.”